



주요 중앙은행들, 달러 유동성 공급 공조 결정

이정환 선임연구원

■ 유럽 재정위기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글로벌 공조체제 필요성이 부각됨.

- 11월 29일 이탈리아 재무부는 총 75억 유로 규모의 국채 발행에 성공했으나, 국채 수익률(3년 만기 7.89%, 10년 만기 7.56%)은 앞선 국채 발행의 수익률(3년 만기 4.93%, 10년 만기 6.06%)을 크게 상회함.
 - 전문가들은 이탈리아 국채 수익률이 디폴트 범주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함.
 - 로이터는 이탈리아와 IMF가 수주일 전부터 경제 지원에 대해 예비 협상을 벌여왔으며, 11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고 보도함.
- 11월 29일 현재 독일과 스웨덴의 국채 수익률은 역전되어 스웨덴의 국채 수익률이 독일 국채 수익률보다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남.
 - 2010년 말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은 스웨덴 국채 수익률보다 31bp 낮았으나, 11월 29일에는 독일 국채 수익률이 스웨덴 국채 수익률보다 60bp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전문가들은 남유럽에 대한 불신이 핵심국가까지 확대되었다고 평가했으며, 일부는 유럽 재정위기가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함.

■ 유럽 재정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자 11월 30일 주요 중앙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시장 신용경색 완화 목적으로 달러 유동성 공급을 위한 공조 조치를 취함.

- 미국연방준비제도(Fed), 유럽중앙은행(ECB), 영란은행(BOE), 일본은행(BOJ), 스위스중앙은행(SNB), 캐나다중앙은행(BOC)은 공동성명을 통해 12월 5일자로 달러 스왑 금리를 현행 100bp에서 50bp로 인하한다고 발표함.
 - 중앙은행들은 이를 통해 3개월 만기 달러 유동성 대출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함.
- 이들 은행들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신용 경색을 경감시켜 경제활동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라고 언급함.

- 중앙은행들의 달러 유동성 공급 공조로 유럽 채권시장은 다소 안정되었으나, 일각에서는 근본적인 재정 위기의 향방은 12월 9일 EU 정상회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함.
- 이탈리아, 스페인, 프랑스, 독일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11월 30일 중앙은행들의 달러 유동성 공급 결정 이후 각각 0.191%p, 0.201%p, 0.154%p, 0.019%p 하락함.
- 전문가들은 재정위기가 은행 위기로, 유럽의 위기가 중국·미국으로 확산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커지면서 중앙은행들이 나섰으나,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금융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함.
- Financial Times는 12월 9일 EU 정상회의까지의 기간이 유로존의 운명을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함.
 - 이 기간 중 유로존의 재정동맹화, 유로본드 발행, ECB의 유로존 국채 매입 확대, ECB의 기준금리 인하 등이 논의될 예정임.
 - EU 관계자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의미 있는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유로존의 붕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.

(Wall Street Journal, Financial Times 12/1, 11/30, 11/29)